

코스피 2330~2870 예상... ‘트럼프·저금리·밸류업’ 주목

〈조선·방산〉

〈플랫폼·바이오〉

〈은행·보험〉

증시 전망

2024년 한해는 한국 증시가 부침을 많은 겪은 해였다. 대표적으로 ‘12·3 계엄령’,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갈등’, ‘미국발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 등 국내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일들이 많았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도 대내외적인 영향으로 자본시장에 불확실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경기회복 가능성과 기술주 중심의 성장세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며 투자자들에게 신중하면서도 전략적인 접근을 강조했다.

메트로신문은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등 주요 6개 증권사(가나다, ABC 순) 리서치센터장에게 2025년 증시 전망에 대해 물어봤다 <편집자주>

◆ 국내 장세 ‘상저하고’ 전망

6대 증권사 모두 2025년 국내 증시가 글로벌 경제 회복 흐름에 발맞춰 국내 장세가 ‘상저하고’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초에는 금리, 환율, 무역 불확실성 등의 요인으로 약세를 보이다, 하반기에는 글로벌 경기 회복과 기업 실적 개선 기대에 따라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2025년 코스피 지수 예상치(미래에셋증권 제외)는 평균 2330~2870로 집계됐다.

정치적 불확실성 등 상반기 약세 하반기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 ‘추세적인 상승 기대하기 어려워’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국 시중 금리 및 수입 물가 상승 우려와 관세 시행 가능성, 기업이익 추정치 하향 등으로 연초에는 코스피 약세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면서도 “1분기 말 기업 실적 전망치 하향 조정이 마무리되고, 미국 감세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2분기부터 주가 반등 기회를 잡아 전환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올해 초에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트럼프 집권 초기의 무역 관련 노이즈가 있을 수 있으나 페닉셀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며 “오히려 2025년 이익 추정치 높은 기업들과, 그런 기업들 중 나뉘고 과대한 기업을 선별해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김영일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하반기 이후 본격적인 트럼프 정책 시행으로 인한 리스크 현실화와 미국우선주의 강화, 인플레이션 반등 등 불확실성 요인 유입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발 불확실성도 주

리서치센터장 2025년 증시전망

| |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 |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 |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
|-----------|---|---|--|
| 코스피 지수 전망 | - | 2300~2800P | 2250~2850P |
| 투자 유망 업종 | 조선, 전력기기, 반도체, IT 서비스, 헬스케어, 엔터, 인터넷·게임 | 트럼프 수혜주(조선, 방산), 은행, 보험, 플랫폼, 바이오 | K-Culture (엔터, 음식료, 화장품 등) |
| 증시 위험요인 | 트럼프 행정부 정책 변수, 인플레이션 압력 유발 시 연준 금리 인하 경로에 불확실성 제공할 수도 | 트럼프 행정부 정책, 한국 탄핵 리스크, 기업 실적 부진, 공매도 재개 | 트럼프의 관세 정책, 대대상 관세 정책 국내 시장 부정적 영향 |
| | 김동원 KB증권 리서치센터장 |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 | 김영일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 |
| 코스피 지수 전망 | 2300~2800P | 2400~2900P | 2400~3000P |
| 투자 유망 업종 | 소프트AI, 변압기·송전망 | 자동차, 기계, 소프트웨어, 조선, 지주·상사(방산) | 반도체, 바이오, 금융, 자동차, 인터넷, 엔터 |
| 증시 위험요인 | 정치적 불확실성, 미중 무역 갈등 양상 | 트럼프 집권 초기 무역 관련 노이즈, 높아진 외환시장 변동성 | 트럼프 내각 구성 이후 정책 불확실성 확대, 금리인하로 수요 측면 물가 상승압력 확대 가능 |

의해야 한다고 봤다.

◆ 을사년 이괄 유망주는?... ‘AI, K-컬처 등 다양’

6인의 리서치센터장들은 2025년 유망주로 인공지능(AI)을 필두로 하는 기술 중심 산업이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작용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트럼프 수혜주 ▲K-culture(엔터테인먼트, 음식료, 화장품 등) 관련주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관련주 등을 유망 업종으로 꼽았다. 특히 하반기에는 트럼프의 정책 기조와 강도 등을 살펴 보면서 투자 방향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트럼프 수혜주(조선, 방산), 낙폭과대 밸류업(은행, 보험), 저금리 수혜주(플랫폼, 바이오)를 투자유망 업종으로 제시했다. 또한 유 본부장은 “낮은 금리와 경기 변화에 둔감한 플랫폼, 바이오, 엔터 관련 종목에 이목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과잉 완화”는 ‘버블장세’를 낳고, ‘버블장세’는 ‘(실적이 빈약한) 성장주’가 이끈다. 즉, ‘대형주’ 부진으로 지수 상승은 제한적인 가운데, 밸류업이 확장될 수 있는 업종이 주목을 받을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하드 AI(투자)’가 주목받았지만, 앞으로는 ‘소프트 AI(응용)’로 이동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밸류업 확대 가능 업종에 주목했다.

아울러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무역 분쟁 이슈에서 상대적으로 자

유로운 IT 서비스, 엔터테인먼트, 인터넷·게임, 헬스케어 업종이 (투자에) 유리하다”고 전망했다.

김영일 센터장은 코스피 지수와 관련한 투자에 대해 “코스피 지수의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라면 서도 코스피 2500선 이하는 하방 리스크보다 지수 상승 가능성이 높은 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코스피 2500선 또는 그 이하에서는 주식 비중을 늘리고, 3000선에 근접하거나 그 이상 상승세가 전개될 경우 점진적으로 현금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트럼프 2기 정책 핵심변수 작용 방산 등 전통 제조업 수혜 전망 ‘AI, 반도체 여전히 중요한 섹터’

◆ 돌아온 트럼프... 서학개미 투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과 함께 미국 주식시장은 새로운 성장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6개 증권사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와 규제 완화 정책은 미국 기업 실적을 끌어올리고 주식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한 글로벌 교역 둔화와 일부 산업의 불확실성도 여전히 우려된다.

트럼프 정부는 대중 관세 60% 확대와 보편 관세 도입을 통해 자국 제조업을 보호하

려는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증권사들은 이에 따라 자동차, 철강, 화학, 방위산업 등 전통 제조업 분야를 주요 수혜 업종으로 꼽았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관련 규제 완화와 투자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AI 기술과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유망한 투자처로 평가되는 이유다. 여기에 금융 업종 역시 규제 완화로 인해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김영일 센터장은 “전기차·배터리·재생에너지 관련주는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AMPC(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 폐지 또는 축소, 화석연료 중심 정책 등으로 성장세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이런 불안정적인 요소를 줄이고 안정적인 접근을 원하는 투자자라면 미국 S&P 500 지수 ETF를 활용한 분산 투자가 유효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희찬 센터장은 “미국 S&P500 지수 ETF를 사면 무난하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으며, 여전히 AI 및 반도체가 중요한 섹터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김동원 센터장도 “2025년은 ‘경기의 완만한 확장 + 금리 인하’의 조합이 나타날 것”이라며 “트럼프 재집권기에도 주식시장이 마냥 나쁘지만은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수혜주로 ▲AI 관련주 ▲경기민감주 ▲금융주 등을 언급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ChatGPT에 의해 생성된 ‘2025년 주식 투자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투자자들’ 이미지.